

# Sermon of the Week:

## Remaining in the Place God Has Called Us

Passage: Genesis 20:1-7 (ESV)

Date: August 3, 2025

Pastor: Dongsuk Chung

In Genesis 12:1-8, when Abraham obeyed God's call and left Ur of the Chaldeans to enter the land of Canaan, God appeared to him and promised,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In that place where he received the promise, Abraham built an altar and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God's calling of Abraham is a foreshadowing of His calling of us. From this account, we learn an important truth: God has called us and we must not depart from the place where He called us.

However, Abraham moved his dwelling southward, away from the place from which God had called him. This reveals that the flesh seeks what is comfortable—like the warmer south—and makes judgments driven by human thoughts, which are influenced by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rather than by God's judgment. In the same way, even after our spirit is saved, before our soul and body are fully redeemed, there can be times when we grow weary of spiritual life. If we do not grasp the preciousness of the manna, we may feel a sense of frustration or monotony toward the daily bread from heaven. But we must clearly understand this: the ruler of the world that we live in is Satan. No matter how many good things are said or accomplished in the world, the end is death. The world is a place which we must leave behind; we must all be freed from the flesh and enter into the spirit.

When believers spiritually depart from the place to which God has called them, they lose God's presence and fellowship. Then, testimony falls silent. And when testimony is gone, only lies remain—as it

happened when Abraham said his wife was his sister. Though initially filled with joy from receiving life, descending into the flesh leads to depression, silence, and loss of testimony.

God called us for the same reason He promised Abraham the land of Canaan as his inheritance: to give us His Son, the eternal inheritance of heaven. Mankind, deceived by Satan, ate from the tree of knowledge and came under the curse of sin and death. Therefore, God Himself took on flesh and came into this world to remove every curse and caused us to be born again as heavenly people. Those who believe in Jesus a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John 1:12-13]. This precious reality becomes ours through faith. Faith comes by hearing the Word and when we believe in our hearts, then we are justified; when we confess with our mouth, we are saved [Romans 10:17, 10:10]. We must not leave this position of being justified 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received without effort of our own.

Abraham was a man of faith: God changed his name, he received circumcision, had deep fellowship with God, was told of Sodom's destruction, and interceded in prayer. Yet, in our passage, we find him once again deceiving others by calling his wife his sister, as if reverting to an old habit. This shows that the flesh cannot submit to God's law and is, in fact, hostile toward Him. This is what happens when a believer leaves the place that God has appointed and loses His presence and communion.

Where, then, is the place that God has appointed for us? It is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cross is where I become one with Christ; where I die and Christ becomes my life and Lord. This is the place to which God has called us. Jesus has become our all: our righteousness, redemption, wisdom, and power. When we

know this truth and put our old self to death at the cross, His righteousness and redemption are revealed through us. But if we do not believe this and cling to our flesh, trying to work in our own strength, the Lord does not work. Even those who are saved can fall into such snares if, like Abraham, they depart from the place to which the Lord has called them. We must remain firmly in the position God has given and never leave it.

Even though Abraham made such a mistake, God defended him, saying to Abimelech, "He is a prophet, so that he will pray for you" [Genesis 20:7]. Through this, God teaches us an important truth: even when we fail, we must not look back to the old self in Adam but remain in Christ Jesus. All who are born again have left Adam and are now in Christ. The man of Adam has already died and in Christ, we have already become a new creation. The Lord tells us to stay in this position and never return to the old Adam.

As it is written, "He has not beheld misfortune in Jacob, nor has he seen trouble in Israel" [Numbers 23:21], God does not look upon our iniquities. He has already made us new creations and we are His people. Therefore, we must believe in the position that the Lord has already accomplished for us, boldly resist the devil, and manifest the victory that Christ has already won. As the Lord said,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done to you" [Matthew 9:29]. Our life is not about striving not to sin, but about entrusting everything to the Lord, saying, "Thank You, Lord Jesus, for saving me through Your blood. Even when difficulties come, every problem belongs to You." When we do this, the Lord will work on our behalf. That is why, whenever trials or troubles arise, we must praise the Lord and declare, "I am victorious in Christ!" May this faith fill our hearts today.



# 심니소식

## 나성교회



## 심성교회

8월 17일, 2025년

NASUNGCHURCH.NET

68 호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0장 1-7절

날짜: 8월 3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자리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창 12:1-8).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곧 우리를 부르신 것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위치를 떠나 남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는 육의 사람들은 육신이 편한 따뜻한 남쪽을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이 구원 얻은 후에 혼과 몸이 구원 얻기 전에는 영적 신앙생활에 싫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나의 깊이를 모르면, 밤낮 먹는 만나에 대해 답답함과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성취를 해도 그 끝은 사망입니다. 세상은 탈출해야 하는 곳이며, 우리는 모두 육에서 해방되어 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위치를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신령한 교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간증이 없어집니다. 간증이 없어지면,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짓 말만 남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기뻐다가

도, 점점 육체로 내려가면 우울해지고 침묵하게 되며 간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곧 기업을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꾀임으로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를 청산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요 1:12). 이 귀한 사실은 믿음으로 얻어 실체가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며,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롬 10:17, 10:10).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소돔땅의 멸망을 알고 중보의 기도를 하던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예전의 습관처럼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와 예수가 한 몸 되는 곳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주가 되는 장소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의, 구속,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를 십자가에 죽일 때, 그 의와 구속이 나를 통해 나타나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고 내 육신을 붙들고 내가 일하려고 하면, 주님

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어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부르신 장소를 떠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치를 굳게 지키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둔하시며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옛 아담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아담에서 떠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미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위치를 지키며 아담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민 23:21)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새 피조물로 만드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이 완성해 놓은 위치를 믿으며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문제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나 괴로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승리자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 중보기도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오성희, 모니카 김 (EM) - 캄보디아에 있는 Tassel(태슬) 선교지에 8월 13일 - 20일 방문합니다. 안전을 위해
- 송성수 (제인) 자매 - 신장수술과 복강수술이 잘 회복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추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20장 1-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

---

---

---

---

---

---

---

2.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

---

---

---

---

---

---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

---

---

---

---

---

---



# 선교소식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 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 나성교회 EM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 a. Ruth and Austin Kuklenski
  -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 주간소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선교 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 수요일 저녁예배부터 서영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결론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삼나소식 온라인

삼성교회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나소식

